



# 노홍석 권한대행, 선거 앞두고 '빈틈없는 대응' 주문

### 노 권한대행 주재 간부회의 개최 장마철 자연재난 대응 집중 점검 국가예산 심의·공모사업 선정 총력

전북도는 1일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모두의 복지' 실현,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대응, 국가예산 심의 대응, 장마철 자연재난 대비 등 주요 도정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노 권한대행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법정 선거사무의 철저한 수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선거인명부 관리부터 투표소 운영 지원, 개표 지원까지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층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해 누구나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정부의 사회보장 개편 기조에 맞춘 민생 대책도 구제화했다.

노 권한대행은 정부의 '생애 전 과정 복지' 확대 흐름에 발맞춰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이 거주지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확대해 생활 밀착형 복지를 구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본격 추진하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발맞춘 불합리한 관행 정비와 선제적 정책 대응도 주문했다.

노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의 불법점

용 문제를 비롯해 전관유착 개선, 기술 유출 대응, 관광직 바가지요금 근절 등 민생 영역의 불합리한 관행을 철저히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발굴해 도 차원의 대응과 부처 건의를 병행하라"고 강조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기획예산처의 부처별 예산 1차 심의가 오는 4일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안 반영이 필요한 사업과 감액 방어가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별 논리 보강과 사전 설명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치권과 시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현안 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는 한편,

정부의 공모사업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장마철을 앞두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배수도와 옹벽, 지하차도, 급경사지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침수와 붕괴 등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방선거의 공정한 운영과 도민 안전 확보는 어떤 과제보다 중요한 책무"라며 "전북자치도는 선거 지원은 물론 복지 확대와 국가예산 확보, 재난 예방까지 모든 분야에서 도민 중심의 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박지원 "농어촌기초소득 본사업 재원 확보할 것"

###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 약속 "농어촌 소득 기반 만들겠다"



박지원 후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군산·김제·부안)는 1일,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초소득과 햇빛소득마을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김제·부안·대야·회현의 농어촌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농어촌기초소득과 해상풍력·영농형태 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농어촌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들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것이 지방소멸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라, 증가한 세수의 일부가 농어촌기초소득 예산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도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전력망 포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 계통 구축 없이는 장기적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 과제를 짚었다.

이어 "햇빛소득마을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익적 전기 사업에 대한 전력량 우선 배정, 농어촌 중심의 전력망 확충 예산 확보 및 국가계획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재명정부-민주당 국회-민주당 지방정부 원팀과 함께 전력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태국 동남아 식품박람회서 70만불 규모 수출 상담

### 도 식품기업 11개사와 공동관 운영 현장계약 8만 3천달러 성과 유통망 강화·해외 진출 기반 확보

전북도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 최대 식품박람회 'THAIFEX-Anuga Asia 2026'에 참가해 총 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8만 3천 달러 상담의 현장 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태국 방콕을 방문해 현지 유통기업과 협력 확대 및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한 현장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불안과 수출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태국을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 내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한류 확산으로 한국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점도 적극 반영됐다.

'THAIFEX-Anuga Asia 2026'은 세계

식품기업과 글로벌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대표 식품박람회다. 올해는 60여 개국 3,3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삼양식품·농심·빙그레·대상 등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도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섰다.

도는 도내 우수 식품기업 11개사와 함께 전북 공동관을 운영하며 글로벌 바이어 대상 1:1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했다. 특히 상담 성과를 실질적인 수출로 연계하기 위해 현장 바이어 매칭과 제품 홍보 활동을 집중 지원했다.

도는 이번 박람회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바이어 상담과 현지 판촉 지원 등을 확대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가자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거래선 발굴과 유망 품목 확대를 통해 동남아 시장 내 전북 농식품 유통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람회 참가와 함께 현지 유통망 확대를 위한 기업 방문도 이어졌다. 태국 최대 한국식품 유통사인 'JIDUBANG(지두방)' 본사를 찾아 도내 식품의 현지 유통



<사진=전북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두방은 자체 콜드체인과 배송망을 갖춘 전문 유통기업으로, 도는 직영 채널과 현지 대형마트(Makro·Big C 등) 유통망을 활용한 판로 확대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한국산 마른김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김스네를 생산하는 'TMK 공장'(익산 에스시디디 해외법인)을 방문해 태국 내 김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

에서는 전북산 원료용 마른김 공급 확대와 동남아 인근 국가 재수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민선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태국 시장은 전북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라며 "현지 유통망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내 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김관영 "도민 정책제안 285건, 도정에 담겠다"

### 14개 시군 순회 현장 목소리 수렴 112건 100대 공약 등에 반영



김관영 후보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기호 7번)는 1일 "민생행보로 시작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은 도민들께서 285건의 소중한 정책제안을 해주셨다"며 "민선 9기에 반드시 실현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민약속 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4년 전북도정은 '도민 정책제안 플랫폼'과 '공약 이행 점검체계'를 통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도정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정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1일 새벽 전주시 환경미화원들을 만나며 민생행보를 시작했던 김 후보는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간 만난 도민들의 제안, 각종 단체와의 정책간담회, 매일 밤 9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유튜브 채널 '김관영TV' 등을 통해 총 285건의 정책제안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분야가 113건, 3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 분야 50건, 체육·문화 분야 35건, 청년 및 인재양성 분야 33건, 새만금·인프라·균형발전 분야 20건, 기타 34건 순이

었다.

김 후보는 접수된 정책제안을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112건은 이미 발표한 전북성공 5대 프로젝트와 100대 공약 등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4050세대 부모 간병 부담과 취업·이직 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정보 제공 확대, △여성성민과 간호사, 사회복지종사자, 소상공인 관련 정책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도민들께서 제안해주신 정책들은 단순한 선거용 참고자료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정책 자산"이라며 "민선 9기에 책임지고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울러 김 후보는 "정책과 공약은 정치인이 혼자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함께 다듬고, 실행으로 완성해 도민과 함께 더 큰 전북의 성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학생은 지역에 안정적

으로 취업·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자치도, 외국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 5일 비전대서 기업·구직자 연결 금융·IT·식품·숙박 등 11개사 참여

전북도는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구직자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오는 5일 전주비전대학교 드림관에서 2026년 외국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도내 우수기업과 외

국인 구직자를 연결해 안정적인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박람회에는 도내 11개 기업이 참여해 총 45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현장면접을 비롯해 기업홍보관, 외국인 지원사업 홍보관, 통역지원, 이벤트 버스 등 총 28개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안내 등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과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기존 제조업 중심 생산직 채용에서 벗어나 금융, IT, 식

품, 숙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 기업들은 사무직, 프로젝트 매니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외국인 관리 매니저 등 다양한 직무 채용을 진행할 예정으로, 도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기업과 구직자의 매칭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면접 희망자를 조사해 기업별 현장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구직자도 행사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도의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도 전북지역 취업에 관심을 보이며 박람회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행사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이 선순환하는 고용 생태계 조성에 힘을 계속하겠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도내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

# 실내 미세먼지 줄이는 팁



실내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01

하루 3번,  
10분 환기 하기  
환기를 하지않는것은 좋지 않다



02

실내습도 50%  
유지 매우 중요 합니다  
젖은빨래, 수건으로 습도 조절



03

주방조리 시  
미세먼지 발생 합니다.  
조리후 환기를 꼭 해 주세요



# 완산소방서 6.3 지방선거 특별경계근무

## 관내 개표소 현장

### 권설텡·소방력 근접 배치

전주완산소방서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와 개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일 오후 6시부터 오는 4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별경계근무는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는 기간 중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주완산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관내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개표소 소방력 근접 배치 △비상연락체계 유지 △투·개표소 인근 예방순찰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등 선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관련해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2일 관내 개표소인 전주화산체육관을 방문해 개표소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개표소 주변 가연물 제거 상태와 소방시설 관리 실태, 비상

시 대피 동선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선거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개표 종료 시까지 소방서장 지휘선상 대기 유지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다수 인원이 운집하는 지역과 화재 취약대상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정소민 기자

## 전북소방 '반부패·청렴 주의보' 발령

### 공정·청렴 가치실현 강조 부패·청렴 위해요소 '차단'

전북소방본부가 "청탁은 멈추고, 청렴은 더하고"란 공정·청렴 가치 실현 소방행정을 강조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2026-3호 반부패·청렴 주의보'를 1일 발령했다. 관련해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사진)은 반부패·청렴 주의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스스로 돌아보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소방행정 실현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부패·청렴주의보"는 청렴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전북소방의 "청렴 알리 시스템"이다.

특히 전북소방본부 청렴주의보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어떠한 부정 청탁을 해서도, 받아서도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따라서 소방공무원 상반기 승진 심사 및 인사·정보 발령시기에 맞춰 주요 시기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청렴 위해요소 등이 사전에 안내된다.

주요 내용에는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부정청탁 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다른 공직자 인사에 부당 개입하는 행위 금지 △인사청탁과 연계된 이권개입 등 부당 행위 방지가 핵심이다.

여기에 전북소방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 신고가 가능한 내부 공익신고 게시판도 병행 운영된다.

## 전주평화도서관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 청각장애인 독서 기회 확대

전주시 청각장애인들의 독서 문화 제공이 확대된다. 이에 시는 '2026년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의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은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독서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평화도서관은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선정 이유로는 지난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장애인 독서 복지 분야 우수 역량을 입증했기 때문이

다. 주요프로그램은 △사서와 함께 도서관 이용법을 배우는 '도서관 사서와의 만남'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어로 소통하며 배우는 '중급 수어교실 <손으로 전하는 소통>' △수어영상도서를 활용한 독후 활동 프로그램 △그림책과

식물을 통해 심리적 치유를 돕는 '원에 테라피<꽃으로 엮는 마음>' 등이다.

향후 평화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어 소통 능력을 한 단계 더 확장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경제 규모 파악 '경제총조사' 실시

###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주 3만8천개 사업체 대상

전주시가 국가데이터처와 함께 전주시 지역 산업활동 수행 사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승인통계인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이어진다.

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로 국가 및 지역 경제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와 향

후 각종 통계 조사 기준이 되는 표본틀(Sampling Frame)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주시 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로 완산구 약 2만개와 덕진구 약 1만8천개를 합산한 총 3만8천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임금 종사자가 없는 부동산 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등은 통계 설계 기준에 따

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의 종류, 종종사자 수, 사업 실적 등 총 38개 항목(공통 항목 12개, 업종별 특성 항목 26개)이다.

올해 조사에서는 AI 활용과 외국인 종사자, 무인 매장 운영 등 산업 구조 변화 반영을 위한 신규 지표도 도입됐다.

조사는 효율성과 응답 편의성을 위해 6월 한 달간 인터넷 및 전화조사가 우선 이뤄진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에는 총 150여명의 조사요원이 활동한다. 수집된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조사 결과(잠정 결과)는 데이터 내검 및 집계, 분석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국가데이터처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 6월 '고위험 교통사고' 총력 대응

### 가장 위험한 달 집중관리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1일부터 한달간 도내 전역에서 '6월 고위험 교통사고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월 중 발생한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20.2명으로 최근 5년간 월별 평균인 15.1 명에 비해 33.8%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며 고령자 야외 활동이 늘고, 이륜차·화물차의 운행이 증가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전북경찰은 6월 한달간 사고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두바퀴차(이륜차·PM, 자전거) △화물차 △음주운전을 4대 고위험 요인으로 정하고 집중관리로 나서기로 했다.

먼저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를 통해 교통·지역경찰이 고령자 밀집 지역과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농촌지역

의 주요 이동 수단인 이륜차를 운행하는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안전도착 및 교통 법규 준수를 집중교육하고 계도할 예정이다.

또 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높은 이륜차와 PM, 자전거 등 두바퀴차에 대해서는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싸이클을 적극 활용해 상습 위반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최근 늘어난 대형 바이크 동호회의 주말 활동 시간대에 맞춰 고위험 위반 행위(난폭운전 등)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청소년 무면허 이용 차단을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협업체 학교 방문 교육도 병행한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에 대해서는 주요 거점 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적재초과 등을 집중단속하고 농번기 인력수송 차량의 승차인원초과 행위도 엄격히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 어르신 안전 교통환경 개선

### '교통환경 Re-바이벌' 추진 고령자 맞춰 보행신호 시간 연장 보호구역·시설물규격 확대

전북경찰청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등 규격 확대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종합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경찰청 이재영 청장은 1일 도민 목소리 반영한 교통환경 개선 '교통환경 Re-바이벌' 핵심 과제로 '어르신 안전 교통환경 개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 교통환경 개선은 노인복지센터·경로당 주변 보호구역 지정 확대



와 원거리에서도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쉽게 알아보도록 시설물 규격을 키워 시인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또 어르신 통행이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 주요 거점 보행신호 시간을 어르신 걸음 속도에 맞춰 보행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교통환경 Re-바이벌" 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대병원 박송희 간호사 논문 국제학술지 등재

### 간호사 표준주의지침 수행 실질적 근거 마련

전북대학교병원 감염관리팀 박송희 간호사의 연구 논문이 국제 간호학 분야 SSCI급 학술지인 대한간호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JKAN) 최신호에 게재됐다.

논문은 '병원간호사의 표준주의지침 수행 관련변인: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으로 국내 및 국외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병원 간호사의 표준주의지침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과 효과 크기를 통합적으로 제시했다.

박송희 간호사는 국내외에서 출판된 총 2321편의 선행 연구 중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50편의 문헌을 선정해 생태학적 모델(Ecological Model)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표준주의지침'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감염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 처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감염예방 행동수칙이다.

이번 연구는 간호사 지침 수행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계와 임상 현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박 간호사는 병원 간호사의 표준주의지침 수행에는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감염관리 지식 △근간성신념 △행동 동기 등 확인, 조직적 요인으로는 △감염관리조직문화 △환자안전문화 △안전풍토 등이 관련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표준주의지침 수행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 강화와 조직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제시했다.

또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 현장 변화를 위해 △긍정적 피드백 체계 구축 △감염관리 교육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병원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전북대 간호대학 정석희 교수와 의과대학 이창섭 교수,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김영만 교수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정소민 기자

## 예수병원 제19차 임상간호연구 논문 발표회

### 예수병원 간호국의 자랑스러운 전통

예수병원 간호국이 지난달 29일 '제19차 학술대회(임상간호연구 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임상간호연구 논문발표회는 예수병원 간호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간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를 통해 바쁜 임상 현장 속에서도 "환자에게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온 간호사들의 학술적 성과"가 공유됐다.

임상간호연구 논문발표회는 지난 2007년 전영신 간호부장 재직 당시 시작되어 올해 19회째를 맞이했다.

나아가 임상간호연구 논문발표회는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는 "예수병원 간호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기도 하다.

이날 이 자리는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교수진이 연구 멘토로 직접 참여해 병원과 대학이 하나 되어 임상 발전을 이끄는 뜻깊은 산학 협력의 장이 이어졌다.

학술대회 주요 내용에는 실제적 고민을 담은 3편의 임상 산학 연구 논문과 1편의 학위 논문 등 총 4편이 발표되며 참



<사진=예수병원>

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산학연구 논문에는 △임상 간호사의 모유수유 지식 및 태도가 모유수유 간호 활동에 미치는 영향(발표: 임금림 / 지도: 예수대 채윤정 교수) △간호근무환경, 간호정보역량, 누락된 간호가 간호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분석(발표: 서향란 / 지도: 예수대 반지현 교수) △입원 아동의 말초정맥주사 유지를 위한 보호자 대상 QR code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발표: 김경서 / 지도:

예수대 김윤미 교수)가 발표되며 실무와 직결된 성과가 공유됐다.

한편 예수병원 석사학위 논문에는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 자기효능감, 프리셋터 교육행동, 간호근무환경이 임상 판단능력에 미치는 영향(발표: 김슬기 / 지도: 예수대 윤지영 교수)이 발표됐으며 간호 인력 양성 및 임상 환경 개선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6월 매주 토요일 한지인형극 이야기 '공연'

전주시민 관광객 위한 한지인형극이 공연된다. 전주시는 1일 '인형극도 보고 한지인형도 만들고!' 프로그램에 6월 매주 토요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형극은 전통놀이 한지를 활용한 인형극이 공연이 펼쳐지며 더불어 참여인들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한 한지 인형 제작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따라서 시는 이번 인형극을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인형극의 매력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지 인형극 공연은 하루 2회 오전 10시 30분 가족 간의 사랑과 효심을 담은 '호랑바위'가, 오후 2시부터는 꽤 많은 토끼와 흰색 호랑이의 재치를 그린 '호랑이님 나가신다'가 공연된다.

또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전통 한지를 활용한 한지 인형 제작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인형극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은 7000원 유료 프로그램으로 회차별 선착순 20명으로 운영된다. /정소민 기자

# 전북TP,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선정

## 전주대와 산학연 협력기반 기술사업화 통합 플랫폼 구축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구성된 '전북TP-전주대 컨소시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제2차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지역 테크노파크와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장비와 기술역량을 공동 활용해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다.

전북TP 컨소시엄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한

'전북형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과 탄소융복합 기술을 연계한 실증 기반 기술사업화 통합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컨소시엄은 전북테크노파크의 생산장비·시험·인증 인프라와 전주대학교의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기술역량을 연계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술자문 △장비 공동활용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PoC 및 R&D 기획 등 전주기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는 '선택형 기술사업화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문가가 기술자문 단계부터 공동 설계방식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TP는 사업을 통해 농기계 중심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고, 탄소융복합 기반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정소민 기자

## 정읍시 '전통 발효 식품' 수강생 모집

식초·누룩 등 제조 기술 전수... 24일까지 접수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총 8회에 걸쳐 전통 발효 식품 제조 기술을 전수하는 '건강을 빛나는 전통 발효' 과정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달 24일까지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식초나 누룩 등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 발효식품 제조 기술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일상생활에서 발효식품을 활용해 시민 건강을 챙기고, 가공 기술

을 통해 지역 먹거리(로컬푸드)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수강생들은 △식초 입문과 찰초 배양 △과일식초, 발효액식초 등 다

양한 초산발효 실습 △자가 누룩 만들기 △직접 만든 누룩을 활용한 청감주(막걸리) 만들기 △발사믹 식초와 초밀란 만들기 등 여러 발효식품을 현장에서 직접 배워보게 된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사라져가는 전통 발효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발효식품의 생활화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통 발효식품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생활지원팀으로 수강신청서를 내면 된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 전기안전공사 '준·특임 감사' 청렴 워크숍 개최

## 청렴·인권·내부통제 위주 내부신고 모의훈련

한국전기안전공사 '제14회 준·특임 감사인 청렴 워크숍'이 개최되며 자율감사 역할이 강화됐다.

준·특임 감사인 청렴 워크숍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준감사·특임감사 7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29일 양일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상임감사 청렴 특강 △우수 준감사인 포상 △준감사인 제도 개선 및 종합감사 중점사항 공유 △이해충돌 방지·인권·내부통제 등 현장 일선에서 공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허정환 상임감사는 "안전하고 청렴한 KESCO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감사인과 특임 감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사인은 사후 지적·감시 역할을 넘어, 경영을 뒷받침하고 공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 공공기관 최초 준감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2025년 특임 감사 제도 도입에 부족한 감사 인력을 보완하고 △감사 착안사항 △감사 시나리오 △발급 △교차·협업감사 등 감사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김영태 기자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 농촌진흥청, 벼멸구 유입 '선제 대응'

## 국내 도착 시기지역 예측 맞춤형 방제 지원

벼멸구는 대표적 비래(飛來) 해충으로 지난 2024년은 3만4천헥타르(ha)에 달하는 논에 큰 피해를 끼치며 큰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 이승돈 정장은 이상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 방제' 대응에서 '사전 방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해 현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측-진단-방제' 통합방제체계를 활용하면 벼멸구 △유입 예측부터 △현장 진단 △맞춤형 약제 선정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피해 확대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시스템(http://ncpms.rda.go.kr)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자동 문자 알림 서비스 연동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멸구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신속 진단 기술도 개발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현장에서는 의심 개체를 빠르게 확인하는 'LAMP 진단법', 실험실에서는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KASP 마커'를 활용해 예찰 정확도와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위해 약제 살충효과를 즉시 평가할 수 있는 약제 검증 기술을 보급한다.

약제가 코팅된 밀봉 유리병(바이알병)에 벼멸구를 넣어 살충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존 검사 방식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약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환경과 손지영 과장은



"벼멸구는 유입 초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기온 등 생육 조건이 맞으면 짧은 기간에 급격히 증식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선제 대응 기술을 현장에서 신속히 전파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광주·서울 도시민, 정읍서 귀농·귀촌 꿈 키워

## 시설·농가 현장 견학

정읍시가 지난달 29일 광주와 서울 지역 예비 귀농·귀촌인 20명을 초청해 거주 실습 시설과 우수 농가를 둘러보는 현장 견학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협력지원센터 귀농귀촌부가 주관하는 '전북에서 가(家)는 정착 설명회'의 하나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앞서 광주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뒤 정읍 방문을 희망한 인원들로 꾸러졌다.

방문단은 가장 먼저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을 찾았다.

이곳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영농 기초를 다지도록 돕는 공간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거주할 집과 실습용 밭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어 시설 운영 현황과 입주 조건 등 시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들으며 농촌 생활의 밑그림을 그렸다.

다음으로 지역 내 우수 농가인 '술바래 농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비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지역 농업 환경과 작물 재배 요령을 배웠다.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선배 농업인과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귀농 준비 과정에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구했다.

시는 현재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을 비롯해 귀농인의 집, 전북에서 살아보기 등 다채로운 연계 과정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설명회를 통해 정읍에 관심을 가져주시 분들



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구체적인 정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 등 튼튼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사진=정읍시>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사진=김제시>

## 김제시, 농촌지도 현장 대응력 강화

직원 업무 연찬회 가져

김제시는 1일 상록관 대강의실에서 농촌지도·연구직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직원 업무 연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도분야 직원 연찬회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해 매월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연찬회에서는 시 주요 작목인 벼, 고추, 포도 분야를 다루며 각 작목별 담당 지도사가 직접 발표를 맡아 현장 사례와 기술 정보를 공유했다. 인력육성팀 소인섭 팀장은 벼 재배기술과 관련해 생육 초기관리와 병해충 대응 방안을, 고추 분야에서는 특화작목팀 최홍근 팀장이 재배관리 및 병해충 예방을, 포도 분야에서는 종자산업

팀 최지석 팀장이 이상기후에 따른 안정 생산을 위한 현장 지도 사례와 주요 관리 요령 등을 발표했다. 또한 작목별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대응사례를 공유하며 해당 분야 팀원들이 당면한 영농기술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문제 해결 중심의 농촌지도 역량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도사 간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제=윤봉기 기자

## 전북조달청, 해양폐기물 친환경 혁신제품 지정

판로확대 적극 지원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광수)은 ㈜쿨베어스(익산 소재)의 '해양 폐기물 업사이클링 가공제'를 적용해 내염소성·내구성 강화된 친환경 섬유류(속셔츠)'가 조달청 신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란 기존 제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성과 혁신성을 갖춘

민간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이 제품은 불가사리 등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한 가공 기술을 섬유에 적용한 친환경 속셔츠로, 버려지는 해양자원을 다시 활용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사회적 가치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김광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친환경 혁신제품이 공공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기업의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은행 '그린' 환경그림 공모전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RCY본부(회장 김홍식)와 함께 '2026 전북은행과 함께 하는 그린(Green) 환경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후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을 주제로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그림은 8월 도화지에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그림 접수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한적십자사 RCY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대상은 전북은행상장과 전북도교육감상 등 초등학생 100명과 올해 신설된 '우수지도교사상' 4명을 포함해 총 104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전북은행 본점 1층에 한 달간 전시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전북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이남호 후보 '공보물 축사 게재' 논란

**선관위, 소명 자료 요구  
이 후보 "공보물 들여다  
볼 시간적 여유 없어...  
당사자 동의는 얻은 것"**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보물 논란에 휩싸인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측에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과거 출판기념회 당시 정치권과 교육계 인사들이 남긴 축사를 이번 선거 공보물에 응원 글로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관위에 사전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전복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관련 문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



전복선관위가 선거 공보물 논란에 휩싸인 이남호 후보 측에 소명 자료를 요구했다.

<사진=전북타임스>

박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상대측인 천호성 후보

측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가 유권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해 당사자 허락 없이 응원 글을 게재했다"며 해당 선거 공보물을 신속히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남호 후보는 "해당 인사들과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기꺼이 추천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공보물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했지만,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평소 직접 챙겼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인사 및 복지 체계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시군 10년 만기 전보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농산어촌 근무 가산점을 상향하는 등 교사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 익산 밤하늘 물들인 '오로라' 주말 상설 운영

매주 금·토·일 야간 진행

익산 신항공원의 환상적인 '오로라 밤하늘'이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연중 상설 운영으로 전격 전환된다.

익산시는 신항공원 오로라 광장에서 펼쳐지는 '야간 오로라 레이저 쇼'를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가동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야간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항공원 오로라 쇼는 지난해 천만송이 국화축제 기간 첫 시범 운영과 연말연시 정식 운영을 거쳐, 최근 개최된 서동축제에서도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익산의 대표 야간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이처럼 축제 시즌마다 쏟아진 시민들의 상설 가동 요청을 적극 수용해,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익산만의 독창적인 야간 감성 명소로 키워나가기로 결정했다.

운영 장소는 신항공원 입구 오로라 광장이며 연중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불을 밝힌다.

익산시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이어 최근 서동축제까지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성원 덕분에 오로라 쇼의 연중 상설 가동을 확정할 수 있었다"며 퇴근길이나 주말 저녁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낭만적인 밤하늘을 즐기며 위로를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전북교사노조 "체험학습 사고, 교육감이 책임져야"

**모호한 '중대 과실'...  
독박 책임 구조 타파 촉구**

전북교사노동조합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비판하며,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인 교육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며 하위 지침과 세부 매뉴얼을 통해 다시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이들은 말뿐인 선언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확실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독박 씌

우는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아 달라는 생존의 외침"이라며 "교사가 처벌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이 오히려 학생들의 배움 기회를 박탈한다"는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교육과정 편성권이 있는 교사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실질적 사용자인 교육감이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민·행사

상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교육은 학생도 보호할 수 없다"며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파행적 구조가 완전히 타파될 때까지 정당한 교육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 군산대 '교제 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 전개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 인권센터는 지난 황룡 학술문화제 동안 군산성폭력상담소(소장 김혜영), 군산시여성안전지역연대 등 지역 인권·여성 안전 전문 기관과 공동으로 교제 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합 행사는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 폭력·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 문화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동 부스에서는 '교제 폭력·스토킹 예방 OX 퀴즈', '예방 정책 설문' 등 체험

형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피해 시 대응 절차 안내와 전문 상담 기관 연계,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도 이뤄졌다.

또한 국립군산대 김강주 총장은 '사랑 씨보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사랑은 국립군산대학교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하며, 교제 폭력·스토킹 없는 건강한 캠퍼스 문화 조성에 대한 대학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임유석 센터장은 "지역사회 전문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인권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 익산시청 육상팀, 국내·외 대회 입상 '쾌거'

김민지·오혜원 선수 메달 획득

익산시청 육상팀이 국내·외 대회에서 잇따라 입상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청 육상팀은 '제22회 아시아 U20 육상선수권대회'와 '제30회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각각 동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오혜원 선수는 올해 전국대회에서 세 번째 입상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져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전북개발공사, 실업육상선수권서 메달 수확

개인·단체종목 성과...

전국무대에서 경쟁력 입증

전북개발공사 여자 육상팀이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남 해남 우슬경기장에서 열린 '제30회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전국 무대에서 저력을 입증했다.

먼저, 여자 400m허들 종목에 출전한 이기쁨 선수는 결승에서 1분 03초 07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개인 종목에서의 선전이 돋보인 가운데, 단체종목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여자 1,600m 계주(4x400mR) 결승에서는 김예지, 여채빈, 이기쁨, 정승연 선수가 호흡을 맞춰 4분 04초 88을 기록, 3위에 올라 동메달을 품에

안았다.

전북개발공사 여자 육상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개인기록 경신과 경기력 향상을 확인하며, 하반기 대회에 대한 자신감과 탄력을 확보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 여자 육상팀은 2011년 창단된 도내 유일 단거리 실업팀으로 올 시즌 굵직한 전국 무대를 거치면서 한층 안정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부단한 실전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은 "훈련장에서 쏟은 노력들이 경기장에서 결실로 돌아왔다"며 "선수단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 순창군 '정구 주니어 대표 선발전' 성료

순창군에서 열린 '2026 한국 정구 주니어 대표 선발전'이 전국 스포르티니스 유망주들의 뜨거운 경쟁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순창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수와 지도자, 임원 등 약 300명이 참가해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이번 대회는 2026 한국 전국 주니어대표 선발전이자 '2026 제5회 중국 장산 세계주니어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대회 기간 동안 참가 선수들은 단식과 복식 경기에서 기량을 겨루며 국가대표의 꿈을 향한 열정을 쏟아냈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주니어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경기마다 수준 높은 플레이와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이어져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주니어대표 선발전 결과 우승은 남파 단식 정현서(홍성고), 여자 단식 김주은(청원 명곡고), 남파 복식 곽윤·윤시후(문경공고), 여자 복식 임수연·김예진(문경조리과학고)조가 차지했다. 선발된 선수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주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 규모의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수단과 관계자,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법



컴퓨터 10분 이상 미사용 시  
절전모드 사용



실내온도를 3도 낮게 설정하면  
약 20% 절전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을 사용하면  
최고 45% 절전



전구식 형광등으로 교체 하면  
70% 적립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 두기

양치질, 면도할 때 물 잠 귀서  
38% 에너지 절전



익산시, '숨숨살롱' 운영... 창업가·브랜드 운영자 경험 공유

익산시가 청년 창업 교류 플랫폼을 가동하며 청년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익산시는 청년 창업가와 로컬 브랜드를 연결하는 교류 프로그램 '청년 인사이트 숨숨살롱'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1회차 프로그램 '작은 브랜드의 생존법'을 시작으로, 5월 30일에는 2회차 프로그램 '같은 차(TEA), 각자의 방식으로 우러난 청년 브랜드 이야기'가 진행됐다.

2회차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차를 매개로 한 브랜드 특강과 다도 체험, 네트워킹, 인화동 골목 투어에 참여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브랜드 운영 사례와 창업 이야기를 접했다.

다경 조승하 대표가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차를 우린다'를 주제로 브랜드 특강을 진행하며 청년 창업 과정과 운영 경험을 공유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 백운차실 김민준 강사와 함께한 다도 체험에서는 차를 활용한 브랜드 스토리와 감각적 경험을 나누고, 인화동 골목 투어를 통해 로컬 자원과 청년 창업의 접점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숨숨살롱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에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익산청년시청 누리집(youthforest.iksan.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청년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청년 농업인 대상 통합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정읍시가 지역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의 농업 연구개발(R&D) 기술을 연계하는 총 2억원 규모의 통합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2026년 청년농업인 연구개발(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같은 공공 연구기관이 일관된 기술 성과를 실제 현장에 접목하는 기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단체들은 전문가 자문부터 창업 기반 조성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세부적인 지원 분야는 신기술 적용, 농산물 가공과 상품화, 융복합, 체험과 치유, 관광 등으로 나뉜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만 18~39세)이 대표를 맡는 5인 이상의 창업 법인 혹은 품목 모임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개발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새소식란이나 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공공자전거 새 이름 '어여타' 최종 선정

군산시가 QR코드 방식의 시스템 개편에 맞춰 추진한 공공자전거 명칭 시민 공모전의 최종 심사(3차) 결과, 최우수작으로 '어여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0일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후보자 5명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심사는 독창성, 적합성, 대중성, 마케팅 확장성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평가 결과, 최우수상(1위)의 영예는 평가점수 총 40점 만점에 36.8점으로 접수자 정\*현 씨가 제안한 '어여타'에게 돌아갔다. '어여타'는 전라도 사투리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흔히 쓰이는 정감 있는 표현이며, 2차 심사인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대중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산시는 이번엔 선정된 최우수 명칭 '어여타'에 맞춰 본격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지어준 새 이름 '어여타'와 함께 군산시 공공자전거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생활인구 전복 1위

작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꽃축제 등 가을철 대표 축제 효과



정읍시가 '2025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전복도 1위를 차지했다. <사진=정읍시>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평균 47만 5440명을 기록하며 전북자치도 내 10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에 더해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 인구'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비롯한 각종 인구 정책의 기준 지표로 쓰인다.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읍시의 월별 생활인구는 10월 51만 3704명, 11월 60만 5740명, 12월 30만 6875명으로 매월 도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 같은 성과는 내장산 단풍과 구절초 꽃축제 등 가을철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생활인구가 2만 8608명 늘었다. 지난 9월에 문을 연 '기적의 놀이터'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이끌면서 전체적인 관광객 증가에

힘을 보탤 것으로 분석된다. 체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4분기 정읍시의 체류 인구는 37만 907명으로 전국 평균과 전북 평균을 크게 넘어섰다. 평균 숙박일은 3.9일, 평균 체류일은 3일로 집계돼 타 지역보다 길었다.

단순 방문을 넘어 오랫동안 머무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3만 3300원으로 전국 평균(12만 300원)과 전북 평균(11만

1500원)을 모두 상회했다. 이는 전년 대비 2만 1500원 증가한 수치로 지역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유호연 정읍시장 권한대행은 "내장산 단풍과 구절초 축제 등 기존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관광 수요에 맞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갭오징어 도시 군산' 조성 본격화

가공식품·관광·콘텐츠 연계 '갭토리의 날' 선포

군산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지역 수산물인 갭오징어를 도시브랜드로 육성하며, 수산자원과 문화·관광·콘텐츠 산업을 결합한 '갭오징어 도시 군산' 조성에 본격 나선다.

시는 오는 9일 '군산 갭오징어 갭토리의 날' 선포식 및 어린이와 함께하는 갭오징어 종자방류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갭오징어를 군산의 새로운 성장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도시 전략을 공식 선언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공모사업인 '갭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성과를 확장하고, 군산 갭오징어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산시는 단순한 수산자원 보호를 넘어 갭오징어를 지역 대표 먹거리이자 관광자원,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수산물 소비 확대와 관광계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행사에서는 군산 갭오징어 홍보영상 상영을 비롯해 AI 기반 '갭토리' 소개, '군산 갭오징어 갭토리의 날' 공식 선포 및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관내 유치원생 50여 명이 참여

해 갭오징어와 넉치, 조피볼락 등의 종자방류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체험행사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수산자원 보호와 바다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자, 지역과 바다가 함께 성장하는 소통행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갭토리의 날 선포식은 군산 갭오징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산의 바다·문화·관광·콘텐츠 산업을 연결하는 미래 성장 플랫폼의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청 앞마당 '초록빛 도시숲' 변신

사업비 6억 원 투입 주민 생활권 쉼터 제공

익산시 신청사 앞 광장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열린 녹색 광장'으로 재탄생했다.

시는 신청사 정문 앞 광장 일원에 시민들을 위한 청정 도시숲 조성을 모두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총사업비 6억 원을 집중 투입해 소나무를 비롯한 고목 25종 547주와 남천 등 관목 16종 1만 1770주를 총

총히 식재해 거대한 도심 녹지축을 완성했다.

시는 이번 도시숲 조성을 통해 청사 주변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조성된 도시숲은 그동안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불편을 겪었던 남중동 지역 주민들에게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친환경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동시에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에게는 딱딱한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한 편안한 인식처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도시숲은 단순한 녹지공간 제공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소비하는 '복합 문화 광장'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된다.

숲과 인접한 야외공연장은 '시청 파크 콘서트'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대규모 시민 축제와 지역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 무대로 연계된다.

시민들은 푸른 나무와 다채로운 꽃밭 사이에서 소풍을 즐기듯 편안하게 문화예술행사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청 앞 도시숲은 행정 공간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시의 의지가 담긴 도심 속 인식처"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시민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태 강소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으로 활용된다.

숲과 인접한 야외공연장은 '시청 파크 콘서트'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대규모 시민 축제와 지역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 무대로 연계된다.

시민들은 푸른 나무와 다채로운 꽃밭 사이에서 소풍을 즐기듯 편안하게 문화예술행사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청 앞 도시숲은 행정 공간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시의 의지가 담긴 도심 속 인식처"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시민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태 강소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접수

7월 10일까지 신청... 포대당 최대 1900원 지원

정읍시가 지역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접수 방식에 따라 나뉜다. 1일부터 10일까지는 '농업이지(농업e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한다. 이후 오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농축산 부산물을 자원회해 토양 환경을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다. 비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2027년까지 해당 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농지가 자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정읍 관내 여러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다면 그중 한 곳의 행정복지센터를 선택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군에 농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와 부숙 유기

질비료 두 가지다. 유기질비료는 20kg 한 포대당 1600원을 보조한다. 부숙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포대당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배정이 확정된 비료는 내년 1월부터 농가에 차레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필수 영농 자재인 비료 구매 비용을 덜어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했다"며 "지원금 혜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최신 상태로 고치고 반드시 기한 안에 신청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로컬브랜드 마켓' 개최**

롯데몰서 19~21일까지

군산시 청년플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는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과 공동으로 '2026년 군산 로컬브랜드 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롯데몰 군산점 후원으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롯데몰 군산점 1층 중앙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마켓에는 군산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기창업가 가운데 판매 가능한 완제품을 보유한 13개 기업이 참여한다.

주요 판매 품목으로는 친환경 제스모나이트 오보제, 저온압착 참기름·들기름, 패브릭 소품, 글루텐프리 쌀카스테라, 건새우, 수제침(짬), 멀티퍼퓸·캔들·수제비누, 반려동물 수제간식, 지압판, 친환경 소창행주, 수제디저트, 스포츠웨어, 프리미엄 개장 등 다양한 로컬 창업 제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팝업부스 행사는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이벤트가 마련된다. 청년플 캐릭터를 활용한 색칠 체험존 '컬러링월'이 상시 운영되며, 주말인 20일과 21일 오후에는 '랜덤 플레이 댄스 챌린지' '스타캐치 이벤트'가 열린다.

주말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팝업부스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 제공되며, 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인증 시 청년플 캐릭터 '키캡 키링'도 선착순 증정한다. 모든 이벤트 증정품은 당일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청년플 관계자는 "이번 마켓은 친환경 소품부터 최신 디저트, 전통 먹거리까지 군산 창업자들의 뛰어난 역량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당부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시, 통합돌봄 체계 강화

노인일자리 연계 모델 구축

익산시가 노인일자리와 통합돌봄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복지 모델 구축에 나선다.

익산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2026년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노인일자리 활용에 취약계층에게 식사 지원과 이동 편의,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안 전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관장 신이원)과 함께 '익산 온(溫)돌봄' 사업을 신청했으며 △사업의 공공성 △지역 연계성 △수행기관 운영 역량 △지방비 투입 계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익산 온(溫)돌봄'은 고령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식사 지원과 이동 동행,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통합돌봄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로 활동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노인일자리와 통합돌봄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복지 모델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의료원·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건강증진 협력

정기 건강상담 등 업무협약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지난날 28일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본관 1층 관상실에서 '지역사회 노인 건강증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퇴행성 질환 및 기능 상실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 어르신들의 통증을 예방하고, 전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2년간 △복지관 이용 노인 대상 전문 물리치료 자문 및 정기적 건강상담 실시 △의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의료 인력 지원 △축탁의(자문위원) 위촉 △노인 질환 예방 교육 및 건강 강좌 지원 등 지역사회 노인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조준필 원장과 정영희와 임종선 과장이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의 축탁의(자문위원)로 함께 위촉됐다.

두 축탁의(자문위원)는 향후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자문과 의료 지원 역할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조준필 군산의료원장은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 물리치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특히 임종선 과장과 함께 축탁의로서 활동하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시 '사회적기업 전환 아카데미' 운영

10일까지 접수

익산시는 사회적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시민과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전환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익산청년시청에서 진행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오는 10일까지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익산시청 정책개발담당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11일에는 '사회적기업 제도 및 진입

을 주제로 사회적기업 설립 절차와 인증 제도, 실제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한다. 참가자들은 현장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으며 사회적기업 진입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2일에는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확산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고창군, 자원 활용 체험 '풍성' 2(題)

## '고창갯벌축제' 5일 개막

전북 고창군이 오는 5~7일 삼일면 만돌갯벌에서 '갯벌이 품은 이야기, 생명이 흐르는 갯벌'을 주제로 '2026 고창갯벌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첫날인 5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빈에서, 장해리, 농수로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축하콘서트'가 열린다.



<사진=고창군>

이번 축제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조개캐기 체험 △풍천장어 무료 시식 △맨손 풍천장어 잡기 △해설이 있는 갯벌 건강걷기 등이 준비됐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해적단 보물찾기'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됐다. 미션 기록에 따라 고창 대표 수산물인 상품으로 증정된다.

축제의 핵심인 '조개캐기 갯벌체험'은 안전을 위해 매일 지정된 볼때 시간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매일 20개의 보물을 숨겨두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보물을 찾는 방문객에게는 고창 특산품을 상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제장 일원에서는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수산물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고창의 자랑인 풍천장어를 비롯해 지주식 김, 바지락, 천일염, 자염 등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 고창갯벌에서 자연과 먹거리, 신나는 문화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국민의 준비를 마쳤다"라며, "고창갯벌에서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열려

고창 선운사에서 천년고찰의 멋과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6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이 오는 6~7일 열린다.

고창군과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경우)는 국가유산청 지원사업인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천년의 숨결 선운사'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운사가 보유한 천년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관광객과 군민들이 산사의 정취를 오감으로 느끼고,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선운사 만세루 일원에서 다도체험과 인경체험, 염색 체험, 만들기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인경체험(보물 제1200호 도솔암 마애불을 새긴 경관에 먹을 입혀 종이에 찍어내는 체험프로그램)과 천연 염색, 다양한 만들기 체험(만다라 목걸이, 부채 등)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다도체험을 배우고, 차담을 나누는 다도체험은 바쁜 일상 속 여유를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진행된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은 선착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참여자들은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선운사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며, 오는 7월 4-5일, 8월 8일, 9월 5-6일, 10월 17-18일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천년고찰 선운사가 간직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조여름의 아름다운 선운사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 장소 관련 기록물 접수

김제시가 벽골제, 금산사 등 김제를 대표하는 장소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제6회 김제시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김제의 장소와 관련된 역사와 생활상이 담긴 기록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명은 "당신의 기록 속, 김제의 그곳을 찾습니다"로, 김제를 대표하는 장소와 일상 속 공간, 그리고 김제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기록물을 폭넓게 수집한다.

벽골제, 금산사 등 김제의 명소를 비롯해 학교, 극장, 시장, 상점, 골목, 마을 등 일상 속 장소와 관련된 사진, 문서, 박물관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기록물을 모집한다.

공모기간은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록물과 함께 김제시청 담당 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직원이 직접 방문해 기록물을 접수받는 출장접수도 운영한다.

접수된 기록물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5명, 장려상 8명, 입선 14명까지 총 30명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100만원부터 5만원까지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수상자는 10월 중 김제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면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전은 김제의 대표 장소와 그곳에 담긴 시민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일상 속 소중한 기록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7월 22일까지 진행

전북 고창군이 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 568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와 매출액 등 공통항목 12개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특성항목 26개를 포함한 총 38개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편의성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방식과 방문 면접 방식으로 병행 추진된다. 온라인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경제총조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방문 면접 조사는 오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사요원 22명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경제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대규모 국가 통계조사"라며 "이는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해 지역맞춤형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학습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 드림스타트는 사레관리 아동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학습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지난달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장기성 선생님이 이끄는 부안여자고등학교 체인지 메이커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맞춤형 학습지원과 정서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지정 토요일마다 총 8회기에 걸쳐 운영되며 드림스타트 사레아동 15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다.

부안여자고등학교 체인지메이커 봉사동아리 6명의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며, 아동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과 진로 탐색 등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또래와 가까운 고등학생 멘토들이 참여함으로써 아동들의 학습동기 향상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멘토와 멘티 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을 돕고 지역 청소년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김제시, 공공일자리아사업 참여자 모집

김제시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6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아사업' 참여자 15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79개 사업에서 116명을 선발해 오는 7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55일간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아사업은 8개 사업에서 38명을 선발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환경정비와 공공시설 관리 등 지역 특성과 공공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며, 시민 생활 편의 향상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후 가구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합격자에 한해 오는 25일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면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경기 침체와 구직난 속에서 시민들의 생계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공일자리아 창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취약취약계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이달의 유물 '단오풍습전' 전시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6월 단오날을 맞아 '단오풍습전'을 주제로 이달의 유물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고인돌박물관 2층 실감영상관에서 열린다.

'단오풍습전'은 우리나라의 단오날 세시 풍속을 소개해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치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옛 조상의 여름맞이 지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이다.

단오(端午)는 농경사회에서 음력 5월 모내기를 끝내고 재역을 예방하며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던 중요한 명절이다. 단오날에는 창포에 머리감기, 수리취떡 먹기, 부채나누기를 비롯해 씨름과 그네뛰기 등 다양한 풍습이 행해졌다.

이번 전시에는 단오의 고유한 풍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박물관 민속유물과 미술관 소장품 등 총 8점이 전시됐다.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단오의 의미와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이달의 유물 전시를 통해 고창의 문화유산과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사랑장학생단 지역 인재 250명 선발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생단은 지난달 29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재단 임원과 장학생, 학부모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김제사랑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된 김제사랑장학생은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규장학생 187명(초·중등 12명, 고등 88명, 대학 87명)과 계속장학생 72명을 포함한 총 250명이 최종 선정됐다. 재단은 이들에게 총 3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초·중·고등학생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며,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 종류에 따라 연 100만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박근남 부이사장은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인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늘 함께 하겠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을 갖고 성장해 지역사회를 밝히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6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청다리도요 선정

고창군이 6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청다리도요를 선정하고,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철새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다리도요는 우리나라 갯벌에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는 나그네새다. 이름처럼 초록빛이 감도는 긴 다리가 특징이다. 러시아 사할린 북동부 일대에서 번식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월동하는 대표적인 이동성 물새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번식을 위해 수많은 도요물떼새가 북상하는 초여름인 6월에도 청다리도요는 고창갯벌에서 꾸준히 관찰된다. 이는 계절 변화 속에서도 풍부한 먹이와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고창갯벌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나윤욱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청다리도요는 계절 변화에 따라 고창갯벌을 찾는 대표적인 이동성 물새 가운데 하나"라며 앞으로 계절별 대표 조류를 통해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갯벌 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빈집 정비 나선다

### 희망하우스 재생사업 12일까지 입주자 모집

부안군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2026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의 입주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주택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저소득층·장애인·귀농귀촌인·청년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군은 올해 빈집 소유주에게 지원 하는 리모델링 예산을 기존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 대상은 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빈집 총 11동이다. 입주 희망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내부 심사를 거쳐 내달 중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노후·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청년과 귀농·귀촌 인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지역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빈집 정비와 재생을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올해는 소유주 지원금을 확대해 주거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개선하는 만큼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귀농·귀촌인 등 많은 분이 신청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김제시, 어린이 승강장 설치 박차

### 아동친화 안전시설 도입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김제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승강장(Kids Station)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제김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오는 11일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승강장(Kids Station)은 하교 후 부모 차량이나 학원 차량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폭염·폭우·한파·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되는 아동친화 안전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2026년 고향사랑기금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4천만 원을 확보하고, 어린이 승강장을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과 나주시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김제 지역 여건에 맞는 '김제형 어린이 안전모텔'로 조성하고 있다.

김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중인 어린이 승강장은 면적 10.4㎡ 규모로, 냉·난방기와 온열 의자, 홍보 스크린, 무선충전기 등을 갖추고 IoT

기반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해 어린이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 김제시 최초의 아동친화 스마트 안전시설로 구축된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은 "어린이 승강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자 기후 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생활 속 안전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하수관로시설 현장점검

###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우기 대비 대응체계 강화

부안군은 지난달 29일 여름철 집중강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내 하수도 시설을 전북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침수 우려가

큰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 및 맨홀 등 주요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우기 대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출포면 주요 저지대 등 집중강우 시 침수 우려가 높은 구역 내 하수관로시설로, 각 기관 합동점검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하수관로 정기 청소 및 준설시행 여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빗물받이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실시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시설 정비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순창군 사전투표율 62.31%...전국 최고

### 21대 대선 이어 9회 지선 전국 1위 전국 평균보다 38.8%p 높아 지난 지방선거보다 12.56%p 상승

순창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높은 시민의식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을 달성하며 전국적인 투표 참여 모범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순창군 총 선거인 수는 25,088명으로, 이 가운데 15,633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율 62.3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인 23.51%보다 38.8%p 높고,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순창군 사전투표율인 49.75%보다 12.56%p 높은 수치다. 지역 현안과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사진=순창군>

군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민들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이라는 값진 성과는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사진=남원시>

## 남원시, 전통문화미식으로 일본 관광시장 공략

### 일본 여행업계 초청 팸투어 개별관광객 유치 마케팅 본격

남원시가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 관광마케팅에 나서며 일본 여행업계와 미디어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남원시는 한국관광공사 오사카 지사와 함께 일본 간사이·중부권 여행사와 언론,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원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는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에는 일본 여행업계와 미디어, SNS 인플루언서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에는 일본 대표 여행사인 한류교통사를 비롯해 아사히신문 미디어프로덕션, 요미우리신문사, 마이니치신문사, 주요TV 등 주요 언론 관계자

들이 포함됐다. 특히 일본 현지 SNS 콘텐츠 제작자와 여행 인플루언서들은 남원의 관광자원과 체험 콘텐츠를 현장에서 취재하며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에 나섰다.

이번 팸투어는 청주공항 국제노선을 활용한 지방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관광무원과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서도역 등을 둘러보고 화인당 한복 체험을 통해 남원의 전통문화와 예술 관광 콘텐츠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지역 대표 음식과 숙박시설도 함께 둘러보며 경쟁력과 시장성을 살폈다.

남원시는 관광무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문화 자원과 체험형 콘텐츠, 지역 미식 자원을 연계해 일본 개별관광객(FTT)을 겨냥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군, 치매 환자 기저귀 택배 서비스

### 환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조호물품 택배 전달 편의 높여

완주군이 치매 환자 가정이 겪는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치매 환자에게 조호물품인 기저귀를 집으로 직접 배송하는 택배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조호물품은 완주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 환자에게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총 24팩을 분기별로 나눠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은 치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완주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조호물품을 수령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 택배 서비스 도입을 통해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물품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홀로 생활해 물품 수령에 어려움을 겪던 치매 환자 가구 등에도 택배로 조호물품을 배달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치매 환자가 복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명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호물품 택배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시, K-뷰티·식물엑소좀 사업 유치 본격화

###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 개최 기술개발 및 실증연계 핵심 거점 구축사업 공모계획 심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시는 지난달 29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이성호 부시장(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남원시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시의회,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주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뷰티 수출거점 사업' 공모안 보고와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개발 및 실증연계 핵심 거점 구축사업' 공모계획 심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그동안 남원시가 추진해 온 바이오산업의 성과와 인프라를 점검하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향후 남원시가 나아가야 할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남원시 바이오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 순창군, 제28회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성황

### 공설운동장서 어르신선수단 열전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대표 생활체육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일천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은 "해마다 게이트볼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웃으며 정을 나누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대표 생활체육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일천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은 "해마다 게이트볼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웃으며 정을 나누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대표 생활체육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일천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은 "해마다 게이트볼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웃으며 정을 나누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대표 생활체육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일천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은 "해마다 게이트볼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웃으며 정을 나누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 완주군, 방과 후·긴급 돌봄 통합 거점 가동

### '365돌봄거점센터' 10월 시범 운영 돌봄부터 놀이까지...공백 해소

완주군이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완주형 초등 방과 후 돌봄 거점공간인 '365돌봄 거점센터'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봉동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내에 자리 잡는 365돌봄 거점센터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과 뛰어난 접근성을 갖췄다.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안심하고 머무르며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

의 보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층 규모로 조성되는 센터는 아동들의 발달과 재미, 든든한 돌봄 체계를 모두 갖춘 맞춤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1층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실내 놀이터 공간이 들어서며, 2층에는 일사·긴급돌봄센터와 함께 방과 후 돌봄 조력을 제공할 지역아동센터가 입주해 종합적인 돌봄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키워줄 특화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손으로 직접 만지고 만들며 성취감을 느끼는 '창작 공방'과 함께, 전북특

별자치도 최초로 도입되는 '비눗방울 체험실'이 운영된다. 비눗방울체험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다채로운 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아동 친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365돌봄거점센터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시, 민선8기 공약이행률 92% 달성

### 41개 공약사업 추진상황 최종 점검 4년 연속매니페스토SA등급결실

남원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4년간 추진해 온 공약사업의 이행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시민과의 약속 이행 현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물결 도약하는 경제도시 △일하고 싶은 창조도시 상생하는 지역경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 △친환경 미래농업으로 6차산업 선도도시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교육 △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등 6대 분야 41개 공약사업을 수립하고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비전 아래 적극 추진해왔다.

민선8기 41개 공약사업 중 이행 후 계속 추진사업이 27개, 정상추진 사업이 14개로 92%라는 높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며 공약사업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주요 성과로는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공산후조리원 건립 △국악전용 극장 조성 및 공연 확대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 조성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100억원 조성 등이 있으며 정상 추진 중인 사업들 또한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남원시는 한국매니페스토

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민선8기 4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하며 공약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최경식 시장은 "민선8기 4년간 시민과 맺은 모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전 부서가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92%의 이행률과 41개 공약사업의 성과는 시민의 신뢰와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그 성과가 다음 시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 완주 대둔산 축제 "트레일·백패킹 한자리에"

### 13일 개막 '체류형 산악축제' 아웃도어 박람회·체험 동성

완주군이 대둔산의 역동적인 자연을 배경으로 전국의 산악 동호인과 관광객들이 일상을 벗어나 머무르고 호흡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체류형 산악 축제'의 이점표를 세운다.

군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대둔산 일원에서 산악 모험과 야외 활동의 매력을 가득 담은 '2026년 완주 대둔산 축제'를 연다.

개막식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기존의 딱딱한 의전이나 형식적인 인사말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그 자리를

방문객들의 환호와 열기로 채워 축제 분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산악 축제의 명성에 걸맞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마쳤다. '완주 9경 장거리 트레일'과 '대둔산 한중주 백패킹'부터 누구나 가볍게 걸으며 즐길 수 있는 '은하수 둘레길 트레킹'까지, 산과 자연 그리고 도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이와 함께 축제장 곳곳에는 다양한 먹거리 장터는 물론, 유망 야외 활동 브랜드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야외 활동 박람회와 다채로운 체험 구역이 운영돼 축제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특별한 할인 행사도 펼쳐진다. 축제 안내소에서 배부하는 방문객 팔찌를 착용하면 대둔산 케이블카 할인(1,500~3,000원)을 비롯해 대둔산 호텔 사우나(30%)와 카페(10%)를 실속 있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행사장 인근 음식점들도 10% 할인에 동참하여 먹거리까지 부담 없이 즐기는 풍성한 축제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완주 대둔산 축제가 대한민국 아웃도어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완주군, 전주생명과학고 예비농업인 농촌체험 팸투어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소년 예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첨단 농업 기술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농업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인제 육성 체계 가동에 나섰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소속 전북삼락로컬마켓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예비농업인 농촌체험 현장 시찰'의 첫 회차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참여자들은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윤지성 농가를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동 온도·습도 조절 체계와 첨단 양배 채배 시설 등 스마트팜의 핵심 운영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현대 농업의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이어 스마트팜 내부에서 자라는 방울토마토의 생육 특성과 관리법을 배운 뒤, 직접 채배 과정에 참여하고 제철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는 실습을 전개했다. 학생들은 친환경 첨단 농업으로 자란 농산물의 우수성을 체감하며 농업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정명석 센터장은 "현장에서의 생생한 기술 체험이 학생들이 첨단 농업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첨단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 인재 유입을 위한 맞춤형 육성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순창군, 금연 문화 확산 나서 모발 니코틴 검사 참여자 모집

순창군은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매년 5월 31일)을 맞아 흡연의 폐해와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모발 니코틴 검사' 참여자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이 개인과 공공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알리고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에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주민 건강증진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검사를 추진한다.

모발 니코틴 검사는 머리카락에 축적된 니코틴 수치를 측정해 최근 수개월간의 흡연 및 간접흡연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다. 특히 흡연자 가족구성원의 간접흡연 노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가족 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관내 흡연자와 흡연자 가족 구성원 50명이며, 모집 기간은 6월 1일부터 19일까지다.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은 금연클리닉(063-650-5234)을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9일 군청서 '사랑의 헌혈캠페인' 전개

완주군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혈액원과 공동으로 오는 9일 완주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혈액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헌혈캠페인은 최근 저출생·고령화와 각종 질병 치료에 따른 혈액 수요 증가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혈액 확보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헌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헌혈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헌장을 방문하면 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 헌혈버스에서 안전한 절차에 따라 헌혈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혈 참여자는 혈액검사 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헌혈 전 충분한 수면과 식사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명관 건강증진과장은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뜻깊은 나눔 실천"이라며 "공무원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읍지사협,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장수군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점옥)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클린하우스'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가구는 부부 모두 뇌병변 장애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집안 정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10여 년간 쌓인 생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방치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이웃 주민의 제보를 통해 알려졌고, 협의체는 해당 가구를 '클린하우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집 안팎에 방치된 대형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정리하고, 주방을 비롯한 주거공간 전반을 청소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또한 장수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회성 환경정비에 그치지 않고, 대상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 도배·장판 지원 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읍, 주요 도로변 화단·가로수 집중 정비

임실군 임실읍(읍장 송기찬)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임실읍 경관유지관리사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실읍의 주요 진입로와 도로변 화단, 가로수를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제1회 임실N장미축제' 기간 방문객 집중을 대비해 임실IC 환단 등 관내 화단 15개소와 국도 17호선 등 가로수 4개 노선을 사전 집중 정비하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했다.

주요 정비 내용은 도로변 화단의 예·제초 작업과 가로수 성장을 방해하는 덩굴 및 맨아 제거 작업으로, 읍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축제 기간 방문객들에게도 아름다운 임실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효과를 거두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무료 토양검정 받고 적정시비 실천 하세요"

진안군은 영농철을 맞아 농가 경영비 절감과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무료 토양검정 서비스' 이용 홍보에 나섰다.

'토양검정 서비스'는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관행적인 비료 과다 투입을 막고 작물에 꼭 필요한 양분만 공급하는 '적정시비'를 돕기 위해서 추진되며 비용은 무료이고, 연중 실시된다. 땅의 건강검진인 토양검정은 토양의 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등 주요 화학성분을 분석해 알맞은 비료 사용량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분석 후 무료로 발급되는 '비료사용처방서'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비료 구매 비용을 줄이고, 염류 집적·연작장애를 예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확한 검정을 위해서는 비료나 퇴비를 뿌리기 전 흙을 채취해야 한다. 해당 필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5개 지점을 선정된 뒤, 깊이를 깊어내고 눈발은 15cm, 과수원은 30cm 깊이로 채취한다. 이렇게 모은 흙을 고무 쪼어 약 500g을 진안군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063-430-8691)에 의뢰하면, 2주 이내에 맞춤형 시비처방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오수 지하시설물 전산화 '시동'

상·하수도 약 158km 구간 정밀 탐사·디지털 DB 구축

임실군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수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임실군은 올해 1차년도 예산 3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총사업비 18억 원 규모의 오수면 지하시설물 정밀 탐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 하부에 매설된 상·하수도의 위치와 깊이, 관경 등 속성 정보를 전자 지도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준점 측량 171점(2급 5점, 4급 166점) △지하시설물도 작성(상수도 82.612km, 하수도 75.603km) △지하시설물도 DB 구축 및 구조화 편집 △공공측량 성과 심사 등이다.

그동안 지하시설물은 눈에 보이지 않아 도로 굴착 공사 시 파손으로 인한 단

수, 가스 누출, 지반 침하(싱크홀)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관로의 위치와 깊이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무분별한 굴착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간정보의 고도화를 위한 '구조화 편집'을 거쳐 실시간 행정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중복 굴착 공사를 방지하고 관로 파손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정신건강복지센터·새마을지회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 협약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노승무)는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회장 장동엽)와 지난달 28일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서로의 마음건강을 살피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생명존중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살위험에 놓인 주민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성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전문기관 연계 △생명존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와 지난달 28일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수군>

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마을 단위의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는 읍·면과 마을 곳곳에 구축된 조직망을 활

용해 주변 이웃의 정서적 어려움과 위기 징후를 살피고,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반디플리마켓 개최

먹고 보고 탐사도 즐기고! 무주반디랜드에서 진행

무주군이 상설 프로그램화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반디놀이 신비탐사'가 운문산반디놀이 출연 시기에 맞춰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10회)된다.

특히 이번 화차는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와 맞물리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탐사객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 거리도 기다린다. 무주군에 따르면 탐사 출발지인 무주반디랜드(무주군 설천면 무

설로 1324)에서는 '2026 야간관광진흥 도시 사업'의 지원을 받아 '반디플리마켓'이 열린다.

6월 3일부터 7일, 6월 10일부터 14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산나물비빔밥과 목사발 등 식사와 떡볶이, 어묵탕 등 분식, 아이스크림과 무주대학찰옥수수 등 간식을 맛볼 수 있다.

또한 '도자기 반디 열쇠고리', '반디 무드드', '액막이 명태 초인종' 등 공예·만들기 체험, '인형'과 '파우치', '양말 목 공예' 등 재활용 공예 체험, '우리 집 가훈 쓰기', '나만의 향수 만들기' 등 감

성·힐링 체험, '꽃다발'과 '테라리움', '다육식물' 등 자연·식물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외에 기념 사진 촬영 부스가 설치되며 '버블쇼' 등 공연도 즐길 수 있다.

김광용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육성팀장은 "반디플리마켓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소독 장출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탐사 관광객 뿐만 아니라 반디랜드를 찾은 방문객들, 그리고 지역민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2026 임실N장미축제' 관광객 28만 대성황

총 매출액 11억8천 지역경제 효과

임실에서 처음 선보인 '2026 임실N장미축제'가 장미 향기 가득한 5월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일원에서 열린 축제에 총 28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향토음식점과 치즈클러스터, 푸드트럭, 농특산물 판매장 등을 포함한 총 매출액이 11억 8,400여만원에 달하며, 첫 개최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축제의 성공은 6만 5천㎡ 규모의 장미원에 만개한 150여 종의 장미와 임실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새롭게 단장한 대형 장미터널은 유럽 정원을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분위기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으며, 행사장 곳곳에 배치된 수국과 계절 초화류



는 풍성한 경관을 연출하며 '머물고 싶은 감성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한층 높였다.

또한, MZ세대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축제의 흥행을 견인했다.

머거리 콘텐츠도 큰 인기를 끌었다. 장미를 테마로한 수제맥주를 선보인 '임실N비어팩토리'는 젊은 관광객들의 취향을 사로잡았다.

심 민 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2026 임실N장미축제'가 수많은 관광객들의 찬사 속에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로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축제장을 찾아주시는 방문객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장미축제의 대성공을 동력 삼아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열릴 '임실N치즈축제' 역시 차별화된 콘텐츠와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취약계층 부부 사진 촬영 진행

부담면지사협 특화사업 추진 반디나눔 모금액 재원 활용

무주군 부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마을과 주민들을 위한 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부담면행정복지센터(면장 강명관)에 따르면 협의체에서는 '우리 동네 혈압 지킴이', '풍성한 한가위 마음나눔 꾸러미', '영양UP 건강음료 결연' 등의 특화사업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부부의 날' 기념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신과 지금, 부부 사진 추억만들기" 사업은 평소 어려운 경제적·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전문 사진 촬영이 찾기가 쉽지 않았던 주민들에게 소중한 순간을 기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사업비 200만 원 전액은 지역 주민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반디나눔' 모금액을 재원으로 활용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읍, 어르신 폭염 보호 대책 수립

경로당·무더위쉼터 안전점검 등

무더위 폭염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임실읍에서는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안전점검에 나섰다.

읍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휴식기 기간(6월-8월)집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폭염 보호 대책 및 안전점검은 구체적으로 홀로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폭염에 의한 안전확보에 있으며, 무더위 쉼터로 운영될 경로당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복지이장을 통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강화, 임실읍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망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임실시니어 일자리 경로당 안전 점검 실시, 맞춤형복지팀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상담 활동 등을 중심으로 취약 노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무더위 쉼터로 이용될 경로당 운영에도 대폭 내실화를 하게 된다. 읍은 폭염기간 중 경로당 상시 개방을 독려하고 경로당 내 적정 실내 온도유지를 위한 냉방기기 작동 상태와 안전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읍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폭염기간 중 무더위쉼터인 경로당을 수시 점검하고 폭염 발효 시 독거어르신의 일일안부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선제적이며 촘촘한 안전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농지전수조사 시스템 실무교육

장수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2층 전산교육장에서 관내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읍·면 농지 업무 담당 공무원 및 농지전수조사원을 대상으로 '농지전수조사 시스템 운영 및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읍·면 농지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현장 조사를 담당할 기간제 조사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새롭게 구축된 농지전수조사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해 농지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

다. 농지전수조사 시스템은 필지별 이용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현장 조사 결과와 행정 처리 내용을 연계해 농지조사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장수군은 이번에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 기본조사 단계부터 심층조사 대상 자동 산출, 일괄 적합 처리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사 프로세스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전기사업 허가 기준 개편

진안군은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사업(변경) 허가 업무 처리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전력공사의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허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관내 배전선로의 접속 가능 용량이 부족해지면서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의 계통연계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실제 발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진안군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예방하고, 사업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변경되는 기준에 따르면 현재는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중심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검토하고 계통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조건부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한편의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해 계통연계가 불가능할 경우 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된다.

군은 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공고 및 유예기간을 운영하며, 변경된 기준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안=전길빈 기자



**고창 상하농원, 사회복지관 이용자 무료 딸기수확 체험 진행**

상하농원(대표 권태훈)이 지역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특별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체험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상하농원 스마트팜 하우스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5개소 이용자와 종사자 등 18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딸기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자들은 붉게 익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스마트 농업을 체험하고, 수확한 딸기를 각자 가져가는 시간을 가졌다.

상하농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다 이번 체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아나바다 캠페인' 진행**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이민호)가 주관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위한 2026년 "생활 속 자원순환 함께 만들어가요" 아나바다 캠페인을 7개 읍·면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라는 생활 실천을 기반으로, 자원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여 탄소배출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주민들이 자원의 순환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 공간을 마련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유도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을 알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 장수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장수군 7개 읍·면 사무소를 생활 속 자원순환 거점센터로 활용해 재활용 가능한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와 케이워터 기술(주) 동화관사업소, 장수교육지원청에도 의류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군산시·국립농업과학원, 양봉농가 일손돕기**

**환경정비·기자재 운반 등**

군산시 동물정책과와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는 본격적인 양봉작업 시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양봉농가를 돕기 위해 1일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역 농업 현장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벌통 주변 환

경정비, 양봉 기자재 운반 및 정리 등 다양한 작업을 지원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작업 전 벌 쏘임 예방 및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박경남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농촌일손돕기가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부안군 재무과, 고추농가 찾아 '구슬땀'**

**농번기 부족한 일손 지원**

부안군 재무과는 지난달 29일 직원들이 청렴협력체인 NH농협 부안군지부 및 부안을 직원들과 함께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부안을 내요리 농가를 찾아 고추지주대 및 제조 매트 설치 작업을 지원하며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약 600평 규모의 농지에서 고추 지주대 설치 작업과 제조 매트 설치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협업을 통해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안=온봉기 기자



**남원산림조합, 장애인의 날 행사 후원금 기탁**

남원시는 남원산림조합이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 행사 후원금 5백만 원을 1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46회 장애인의 날 행사는 6월 16일(화)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남원시지회 및 6개 장애인단체 주관으로 남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작년 대비 지역 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후원 등이 감소함에 따라 행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소식을 접한 남원산림조합에서 후원금을 기탁하

게 됐다. 허준영 조합장은 "평소 남원산림조합과 조합원들은 장애인 등 지역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이 되어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기탁으로 풍성한 행사가 되어 지역 장애인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시에서도 장애인이 편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근대5종 선수단, 달리기 재능기부**

완주군 근대5종 선수단이 최근 봉동교 일원에서 완주군청 직원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주법과 안전한 수칙을 전수하는 '달리기 기초 강습'을 전개했다.

이번 강습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근대5종 선수단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장려하고 일상 속 건강 복지망을 다지기 위해 주체적으로 마련한 재능기부 행사다.

선수단은 최근 인기 운동으로

떠오른 달리기 운동 시 발생하기 쉬운 부상을 방지하는 비법과 체계적인 준비운동 방법을 세심하게 교육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선수단 관계자는 "이번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이 체육 활동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받은 따뜻한 응원을 주민들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는 뜻을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 샘골야학교 등 8개 단체, 천변누리공원서 환경정화**

정읍 장애인 샘골야학교(교장 문성하)를 포함한 지역 내 8개 장애인 단체가 지난달 29일 천변누리공원 일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탄소중립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기획됐다. 행사 당일 샘골야학교를 비롯한 참여 시설의 학생, 교사, 자원봉사자들은 조별로 팀을 꾸렸다.

이들은 공원 주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컵, 비닐봉지, 담배꽂초 등을 줍고 분리수거를 마쳤다.

특히 소외 계층이 최근 사회적 화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를 주도적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사회를 스스로 가꾸기 위해 여러 기관이 연대해 덕분에 정화 작업은 한층 효율적이고 활기차게 이뤄졌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에 직접 만든 설기떡 나눔**

김제시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1일 센터 내 정성나눔 주방에서 '떡하니 설기떡 나눔' 사업을 추진해 총 150개의 떡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제 지역 특산물인 쌀을 활용해 건강한 전통 간식인 설기떡을 직접 만들어 나누는 활동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진 현대사회 속 우리 전통 먹거리의 가치를 알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앞서 지난 4월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을 통해 발대된 다온설기봉사단(회장 박효정) 회원들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며 구슬땀을 흘렸으며 특히 달콤한 옥수수 넣은 옥수수설기떡을 만들어 김제시자원봉사센터 활동처 아동들에게 전달하며 건강한 먹거리 나눔을 실천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가전제품 화재예방 을 위한 자기관리 방법**

**제품관리**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원코드를 빼주세요

연기나, 타는 냄새가 날 경우 전원코드를 빼고 해당 업체로 문의하세요

전원코드가 손상된 경우 사용 중지하고 해당업체에 문의하세요

**주변관리**

멀티콘센트 사용시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전원을 꺼주세요

전원코드를 뺀 후 마른수건으로 먼지를 청소 해 주세요

전원코드를 끝까지 꽂아 주세요

〈一事一言〉



6월3일, 전북의 자존심과 미래를 향한 위대한 주권을 행사하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선택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단순히 향후 몇 년간 지역을 이끌 행정 책임자와 교육 수장을 뽑는 날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오만한 정당 권력에 신음하며 무너져 내린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고, 우리 아이들과 지역의 생존을 담보할 미래를 도민 스스로의 손으로 결정하는 '위대한 주권 선언의 날'이다.

본지는 그간 전북 정가와 교육계의 어두운 구석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도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자 치열하게 펜을 들 어왔다. 감사하게도 수많은 도민 독자 들께서 본지의 논조에 깊이 공감해 주셨고, 지역의 여론 역시 상식과 정의를 향해 대항 파도를 이루며 물결치고 있다. 이제 선거 전 마지막 지면을 빌려, 전북의 진정한 주인인 도민들의 현명하고 준엄한 선택을 당부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 전북이 마주한 민낯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거대 정당의 콘크리트 텃밭이라는 단일한 착각에 빠진 기성 정치권은 도민을 주권자가 아닌 거수기로 취급했다. 전북선관위가 경선 개입 혐의로 현직 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정읍 식 사비 대납 의혹'의 진실을 밝힌 청년들을 향해 '정치공작'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며 무차별적인 사법 고발로 보복하는 비정한 '조폭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유력 후보들은 "중앙당의 결정"이라며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깃발만 쫓으면 당선된다는 오만 함이 빛어낸 이 타락한 풍경 앞에, 오랜 세월 당을 지켜온 당원들과 지지층 내부

에서조차 "부끄러워서 표를 못 주겠다"는 통탄의 균열이 일어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특히 교육계의 현실은 도민들에게 더 큰 충격과 도덕적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아이들에게 '정직'과 '도덕'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 선거는 추잡한 흑색선전과 사법 수사의 장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핵심 캠프 관계자가 캠프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대가로 언론인을 돈으로 매수하려다 선거사무소가 전격 압수수색을 당하는 조유의 '돈 선거' 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교육을 가르치겠다는 자들이 뒤에서 부정한 거래를 모의하는 이 참담한 이중성 속에서 전북의 교육 도덕성은 완전히 파산 신고를 받았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입시 위주의 파행 운영 속에 교생 5-6명 중 1명이 최하위 등급인 '저체력 군'에 속해 '종이 인형'처럼 시들어 가는 동안, 교육 행정은 방조와 태만으로 일관했다.

이 모든 혼란과 위기 속에서 전북 정치가 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한 것은 결국 현명한 도민들이다. 본지가 매섭게 꾸짖었던 기성 정치의 횡포와 교육계의 부패에 대해, 도민들은 정당의 맹종을 거부하고 '인물론'과 '도덕성 회복'이라는 거대한 민심의 호령으로 응답해 주셨다.

최근 간신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립의원법' 역시 도민들의 단호한 생명권 수호 의지가 없었다면 또다시 정쟁의 사지에 묻혔을 것이다. 이제 15년의 무복무를 담은 국립의원법원의 온전한 실행과 집행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정당은 도민의 뜻을 받드는 도구일 뿐이며, 후보는 도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전북은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며, 타락한 후보들의 사익을 채우기 위한 야합의 장터가 아니다. 맹목적인 정당 투표의 시대는 끝났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이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청년들의 장래를 짓밟은 비정한 세력, 그리고 뒤에서 금품을 거머쥐며 전북 교육을 더럽힌 합량 미달의 정치 업자들은 6월3일 주권자의 준엄한 채찍 앞에 똑똑히 심판받아야 한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들이여!!!!!!!!!!!!!! 여러분의 손에 흰 한 표는 무너진 전북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다. 말이 아닌 실천을, 변명이 아닌 책임을 지는 진짜 일꾼을 선택하라.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고, 아이들의 숨구멍을 열어주며, 도민의 생명을 책임질 리더를 뽑아라.

본지는 도민의 집단지성과 현명한 선택의 힘을 굳게 믿는다. 6월3일, 오만한의 끝을 고하고 전북의 위대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표로써 증명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전북의 새 역사는 오직 도민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될 것이다.

사설

기본소득, 성과 홍보보다 냉정한 검증이 먼저다

전북도가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황을 찾아 성과를 점검했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 상권에 활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구 증가와 소비 확대, 가맹점 증가 등의 수치 역시 정책 효과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책은 기대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본소득 정책일수록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제시되는 성과들은 대부분 단기적 소비 증가와 주민 체감 만족도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가 기본소득 때문인지, 귀농·귀촌 정책이나 다른 행정 지원 효과 때문인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소비 증가 역시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결과일 뿐, 지역경제의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재정 지속 가능성이다. 기본소득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주민들이 혜택에 익숙해진 이후 재정 악화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예산 대비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행정은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책의 성공은 홍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냉정한 데이터와 객관적 평가,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성공이라 부를 수 있다. 전북도가 진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먼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도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독자투고

집회현장 개인방송, 표현의 자유 넘어 타인의 피해가 되어선 안된다



최근 집회·시위 문화가 변화하면서 유튜브·인터넷 방송·실시간 스트리밍 등을 활용한 개인방송이 급증하고 있다. 현장의 분위기와 참가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 한다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일부 방송에서는 참가자들의 얼굴과 신상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의 얼굴을 근접 촬영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시키거나, 특정 참가자의 직장·학교·가족관계 등을 추적해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털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단순히 현장 모습을 촬영하는 수준을 넘어, 참가자의 차량번호·명찰·휴대전화 화면까지 송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후 온라인상 집단 비난과 협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의견 표명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직장 내 불이익, 사회적 낙인, 정신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시민 참여 문화를 해치는 심

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행 법령 역시 이러한 행위를 결코 가법해 보지 않는다. 타인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특정이 가능하도록 유포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반복적 괴롭힘이나 협박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회 참가자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집회·시위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인방송 진행자는 조희수와 자극적인 콘텐츠 경쟁보다 타인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참가자 역시 불법 촬영이나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자체와 신고를 통해 건전한 집회문화 조성에 함께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더욱 빛난다.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역시 한층 더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황호인

오늘의시

벌레 먹은 희망으로 / 박노해

덧밭에 심은 배추를 뽑아  
대충 씻어 찜을 싸 먹는데  
배추벌레 한 마리가  
늘씬늘씬 기어간다  
  
하 고놈 참 이쁘다  
고맙다

너 아직 살아 있구나  
그냥 눈물이 난다  
흙집 하나 없는  
아주 매끈한 배추처럼  
벌레 하나 범접 못하게 혹독하게  
인간의 욕망을  
죽이던 시절이 있었다

내 언 몸속 죽은 듯한  
배추벌레들 눈뜨며 꿈틀댄다  
  
아 나 살아있다  
이리 푸른 속울음으로  
벌레 먹은 희망으로  
나 살아있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주경야독으로 서울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7년여동안 수배생활을 하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6개월 만에 출소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8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곁에서 전북의 이야기를  
전북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정확한뉴스-스 바른소식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문의 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 김제시, 자연과 공존하는 공설추모공원 조성



공설추모공원 조감도

## “기억은 따뜻하게, 이별은 품격있게”

김제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와 화장문화 확산으로 공공 장사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품격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공설장사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5년 전국 평균 화장률은 94.4%에 달하며, 2023년과 2024년 화장률은 각각 92.5%, 93.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사문화 역시 기존 매장 중심에서 봉안과 자연장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김제시는 지역 내 공공 장사시설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심리적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공공 장사시설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공원형 추모시설 조성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일원에 약 3만 6천㎡ 규모 부지에 2만 기 규모의 봉안당과 자연장지,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설 장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장례시설을 넘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복합 추모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공동묘지의 재개발로 현재의 어둡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자연 친화적이고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찾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녹지와 휴식공간을 함께 배치해 추모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공공간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 행정절차 및 법령에 따른 체계적 사업 추진  
시는 지난 2024년 12월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분묘조사 용역과 문화재 영향진단 용역,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

역 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의 재정적 적정성과 필요성을 검증받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지 내 유·무연분묘 이전 절차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연분묘는 연고자 협의를 통해 원만한 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무연분묘는 공고 및 개장허가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분묘 이전 과정에서 연고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안내와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 설명회·의견수렴 통해 지역사회 상생 도모

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공모를 통해 주민 찬성률과 임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우려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 “공설추모공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니라 시민 삶의 마지막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공공복지시설”이라며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추모공간을 조성해 시민 중심 장사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관련 행정절차와 분묘 이전 및 설계공모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제시는 준공 이후 시민들의 장사 부담 완화와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남원 광한루 (南原廣寒樓) 국보 지정 예고

우리나라 누정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인정

지정명칭 남원 광한루

조성연대 : 조선시대 수량 : 1동(488.3㎡) 구조 : 목구조(분루, 요선각, 월랑)